

산협단, “기술이전 수입 30억 원 이상 목표”

대학알리미 6월 공시 분석 ①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2014학년도 우리학교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총 42건, 수입료가 약 20억 9,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학년도에 비해 계약 건수가 14건 증가하고, 수입료도 약 7억 원 늘어났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지난달 30일 공개된 내용이다.

대학의 기술이전 계약은 ‘연구, 개발(R&D)’을 통해 취득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적재산권을 기업에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기술이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창출하고, 대학 역시 새로운 연구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학협력 중 대표적인 활동이다.

기술이전이 증가한 것에 대해 산학협력단 측은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와 산학협력단의 협업이 잘돼 거둔 성과”라며 “다른 대학에 비해 후발 주자인 만큼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학교 기술이전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HEVC/H.265’가 있다. 이 기술은 전자정보대학의 박광훈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대용량 동영상 데이터를 압축



하는 코딩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보다 빠른 속도로 고화질의 동영상을 매끄럽게 볼 수 있어, 스트리밍 서비스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이 기술은 국제 표준 특허로 등록돼 있고, 전 세계 모든 IT 관련 정보 기관에 필수로 탑재될 예정이다. 이 기술이전을 통해 이미 약 10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향후 20년간 기술사용료를 계

속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2014학년도의 기술이전 수입료는 2013학년도보다는 증가했지만,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학년도의 30억 6,400만원보다는 저조했다. 산학협력단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적극적인 기술 마케팅이 부족했던 결과”라고 설명하며 “올해는 적극적인 기술 마케팅을 통해 30억원을 수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학교는 ‘대학 창의적 자

산 실용화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교육부에서 올해부터 3년간 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5억 원, 내년에는 10억 원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이런 지원금을 토대로 변리사 등 실용화 전담인력을 갖추고, 시제품 등을 제작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단 측은 “향후 연구 진흥을 위한 재투자를 활발히 해 교수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사 강의료 평균 4만 9,950원, 사립대학 평균보다 낮아

대학알리미 6월 공시 분석 ②

백승철 기자 scho1357@knu.ac.kr

2015학년도 우리학교 ‘시간당 강사 강의료 평균’이 4만 9,9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만 693원과 비교할 때 약 700원 줄었다. 4년째 일반대학 176개교 평균 5만 5,100원 보다도 5,150원 낮았고, 사립대학 평균 5만 600원 보다도 적었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 지난달 30일 공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기존에 우리학교의 시간당 강사 강의료의 지급기준 단가는 최저 4만 1,000원에서 최고 5만 1,000원으로 총 2가지로 구분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 2만 550원에서부터 최고 7만 6500원까지 총 6가지로 세분화됐다.

이중 5만 1,000원을 강의료로 받는 시간강사가 90.1%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금액을 강의료로 받은 시간강사가 총 94.8%였던 것과 비교할 때 4.7%p 감소했다. 또한 지난해 강의료로 4만 1,000원을 받은 시간강사가 5.2%, 올해도 5.2%인 반면, 2만

〈우리학교 시간당 강의료 지급단가 구분 및 비율〉

기준	비율	2015학년도 신규	비율
4만 1,000원	5.2%	2만 5,500원	4%
		4만 1,000원	5.2%
		5만원	0.1%
4만 1,000원	94.8%	5만 1,000원	90.1%
		5만 1,500원	0.1%
		7만 6,500원	0.4%

550원을 받는 시간강사가 4.0%로 새롭게 늘었다. 이런 강의료 세분화의 결과 평균 강의료 역시 줄어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시간강사 강의당당비율은 3년 동안 하락세다.

“많은 수의 특허 출원보다
널리 활용되는 것 더 기대”

인터뷰 - 박광훈 교수

방누리 기자 superior423@knu.ac.kr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에서 보듯 특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학교 연구진의 특허출원 현황은 어떠할까. 국제캠퍼스 연구 산학협력처에 의하면 2014년 기준 교내 특허출원 건수에서 박광훈(컴퓨터공학) 교수가 국내외 64

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4년 세계 표준의 날’ 균정포장을 수상

하기도 한 박 교수는 국제표준화의 선도자 역할에 힘쓰고 있다.

박광훈 교수의 주 연구 분야는 멀티미디어, 그 중에서도 동영상을 압축하는 기술인 ‘코덱’

이다. 그는 MPEG-2, MPEG-4, AVC/H.264를 시작으로, UHD

방송에 사용되는 영상압축표준인

HEVC/H.265에 이르기까지 동영

상 코딩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

고 관련 핵심기술을 채택시켰다.

그리고 이 기술은 현재 스마트폰이나 TV, 디지털 카메라 등에 탑재돼 수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박 교수는 최다 특허출원 보유자란 말에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다”면서도 “하지만 특허 등록과 출원 건수가 많다는 이

야기보다는 내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에서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

으로 널리 활용된다

는 말을 더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지금까지 팔복 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박 교수

는 그 첫 번째 비결을 ‘재미’로 꼽았다. 연구를 하다보면 대인관계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재미있으면 고단함도 잊은 채 몰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박 교수는 대학원생을 뽑을 때 ‘게임하느라 밤새 적 있는가’를 묻곤하는데, “며칠 밤을 새가며 게임을 하는 사람은 재미를 붙이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라며 “연구자에게는 이런 ‘근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박 교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특별한 방법으로는 “문제가 되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머릿속에 뜯구름만 잡게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특허출원을 위한 연구가 쉬운 길은 아니었다. 하지만 박 교수는 “하고 싶은 것, 흥미 있는 일을 하고 산 덕분에 결과도 좋은 것 같다”고 회상했다. 앞으로의 연구계획도 복잡하지 않다. 그저 “재미있으면 계속 하겠다”고 한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해온 그의 20년 세월이 느껴졌다. 롤프 메르클레의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떠오르게 하는 박광훈 교수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Voice Of University, 대학의 소리 방송국이라는 이름의 V.O.U는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를 바탕으로 건전한 학풍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뉴스 보도를 통해 학내 정보를 전달하고,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하며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V.O.U는 항상 경희 구성원과 대학의 지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V.O.U 여기는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의 대학소리 방송입니다.

